

# 탄소나노소재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나노전기전자 국제표준화 워크숍 개최... 국내 첨단기술 국제표준 전환 전략 논의

AI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탄소나노소재의 국제표준 선점 전략을 논의하는 지리가 전주에서 마련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김용만)은 탄소나노소재 기반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6년 나노전기전자(IEC TC113) 국제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합서비스표준과 정의용 과장을 비롯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나노전기전자 기술위원회(IEC TC113)에서 활동하는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과 국제표준 개발 책임자 등 국내외 표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IEC TC113은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 등 나노기술이 적용된 전기·전자 제품과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기술위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나노소재 기반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6년 나노전기전자(IEC TC113) 국제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회다.

워크숍 첫날에는 국내 나노전기전자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발표에서는 △2차원 물질 기반 반도체 소자의 작동개시 전압 측정 방법 △탄소나노소재의 외부 물질 접촉 표면적 측정 방법 △차세대 AI 반도체

칩 연결부의 품질 평가 방법 △전기차 배터리 등의 용량 향상에 활용되는 실리콘 소재의 성능 평가 기술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기술규격(TS)으로 발행된 나노소재 관련 표준을 정식 국제표준(IS)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기술규격(TS)은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단계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술 기준이며, 국제표준(IS)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표준을 의미한다.

둘째 날에는 나노소재 분과위원회를 열고 국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방안을 검토했다. 또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 19일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세무법인 텍스마일, 이든행정사무소와 외국인 고객의 금융 및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외국인 금융·생활 지원 강화 협력

전북은행-평택외국인복지센터-세무법인 텍스마일-이든행정사무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세무·비자·체류·노동·복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외국인복지센터의 생활·노동·복지 분야를 비롯해 세무법인 텍스마일의 세무, 이든행정사무소의 비자·체류·행정 분야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콘텐츠와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브라보코리아와 전북은행의 온·오프라인 고객 접점과 연계해 외국인 고객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수처리 기업 3개사, 인도 시장 공략

인도 전시회 참가해 1억800만 달러 업무협약 성과

전북지역 수처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출상담과 업무협약(MOU)을 이끌어내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EAW Global Aqua Expo 2026'에 전북 수처리 관련 기업 3개사가 참가해 총 38건, 1억94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5건, 1억8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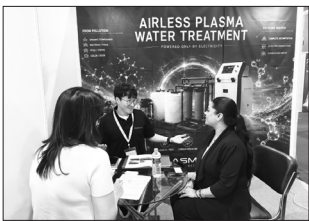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주)플라즈메이스, (주)

올림이엔티, 한삼코라쥬가 참가했다.

경진원은 인도통상거점센터를 활용해 현지 바이어를 사전에 발굴하고 상담 주선과 통역, 부스 운영 및 물류 등을 지원하며 전북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뒷받침했다.

특히 (주)플라즈메이스는 친환경 플라스마 수처리 장치를 선보이며 15건, 1억8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고 5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도 현지 수처리·폐수처리 및 환경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플라스마 기



술의 처리 효율과 운영비용, 기존 UV·염소처리 방식과 비교한 기술적 장점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미국·캐나다·인도·호주 등 각국 정부에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현지 기업 WWM과는 1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이어졌다.

(주)올림이엔티는 생물전기화학 기반 고농도 폐수처리장치를 선보여 12건, 141만9천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인도 현지 기업들과 수처리 및 환경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생물학적 처리 제품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샘플 테스트와 후속 미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삼코라쥬는 STS 라이닝 물탱크와 다중여과 입수관 등을 중심으로 1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인도 현지 정부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현지 정부 프로젝트에 제품을 포함하는 방안과 인도 시장에 적합한 가격 등을 검토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장수군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선정기업 간담회 열려

전북테크노파크가 장수군 지역 연구산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19일 장수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장수군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선정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군 지역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026년 사업에 선정된 19개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TP와 참여기관인 캠틱종합기술원 실무자, 선정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JB슈퍼씨드 적금 '씨드를 찾아라' 이벤트

전북은행이 'JB슈퍼씨드 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JB슈퍼씨드 적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씨드를 찾아라' 이벤트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채널 전용 상품인 'JB슈퍼씨드 적금'은 매일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다음 달 '씨드'가 무작위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벤트 기간 신규 가입 고객이 특정 씨드를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